

캐나다, 6월 소비자물가 0.7% 상승

6월 전기세 17.2% 상승, 은행금리는 0.25% 유지



22일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년에 비해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펜데믹 이후 6월까지 2개월간 연속 하락했으나 경제재개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기업활동과 공공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차량 이용이 증가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제외하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체적으로 1.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CIBC의 수석 경제학자 로이스 멘데스는 경제재개 조

치로 비즈니스 활동이 증가하고 소비활동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일부 공급망 중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은행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올해 0.6%가 될 것을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0.25%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기지이자 비율도 3월 연속 금리인하와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이번 달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6월 전기세가 전월 대비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기세를 인하했으나 6월 1일부터 다시 전기세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서 크게 변동한 것으로 보고있다.

펜데믹 이후, 소비자 행동 변화는 주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하락시켰으며, 캐나다 통계청은 4월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캘거리여성회 반찬 나눔행사 성료



캘거리 한인여성회 (회장 고경숙)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마트 가기도 힘든 노인가정을 돕기 위해 실시한 반찬나눔 행사가 토요일인 18일 오후 NE 한인아트플러에서 진행되었다.

노인들 우선으로 200여 명에게 제공된 반찬 꾸러미는 여성회원들이 정성들여 준비한 김치, 짜리고추 멸치 볶음, 돼지고기 장조림이 담긴 소형 플라스틱 박스들이 들어있었다.

한인여성회는 일부 거동이 불편한 한인노인들을 위해 코리아아트센터를 방문한 분들에게 이웃 노인들에게 반찬을 전해달라는 배려도 잊지않았다.

캐나다 텅비고 · 美는 꼭차 코로나에 나이아가라 관광선 명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 차이 보여주는 사진 화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세계적 관광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운항 중인 캐나다와 미국 관광선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BC 방송 등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의 캐나다 쪽 관광선이 6명의 승객을 태운 데 비해 2개 층 갑판에 승객들이 가득찬 미국 관광선이 스쳐가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됐다. 두 배에 탄 승객이 이처럼 크게 다른 것은 두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다르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

른 관광선 영업 허가 조건으로 탑승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다.

미국 쪽은 코로나 확산세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정원의 50%까지 관광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진 속 캐나다 관광선인 'hornblower'(Hornblower)호는 탑승 정원이 700명이지만 승무원 4명을 제외하고 관광객 6명만 탑승했고, 미국의 '메이드 오브 미스트'(Maid of the Mist)호에는 2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서로 다른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퀘벡에서 가족 여행을 왔다는 캐나다 관광객은 "미국 쪽 크루즈선과 마주칠 때 사

람이 붐비는 그 배의 사진을 찍었다"면서 "그런 배를 타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곳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다른 캐나다인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 좋다"며 "코로나19가 미국에서는 창궐하고 캐나다에서는 왜 그렇지 않은지 두 관광선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혼블로워 크루즈사의 모리 디모리지오 부사장은 "미국 경제사를 보면 우리도 정원의 30%나 50%까지 수용하고 싶지만 안전한 운항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이드오브미스트 사는 웹사이트에서 뉴욕주의 공공보건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CBC는 전했다. 지침에 따라 승객들은 선내의 표시대로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 등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4일부터 3단계 경제활동 재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 나이아가라 관광선 수용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도 미국 쪽과의 대비는 여전할 것 같다고 방송은 말했다.

월마트 캐나다, 35억 달러 투자계획

매장공사 및 유통, 기술분야...일자리 창출 기대



월마트 캐나다는 앞으로 5년간 35억 달러를 투자해 매장 및 웹 서비스 개선, 150개 점포 개보수, 2개 물류센터 신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마트는 이번 투자로 인해 캐나다에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캐나다 첨단기술 업체들과 파트

너십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월마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첨단 기술에는 고객이 매장 내 어디에서나 모바일 기기로 구매 비용을 결제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 전체 매장의 70%에 해당하는 약 270개 지점에서 물품 픽업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며 캐나다 내 월마트 매장의 3분의 1 이상이 3년에 걸쳐 개보수할 예정이다.

월마트는 11억 달러를 들여 온타리오주 본 지역과 BC주 서리 지역에 2개의 유통센터를 새로 짓고 기존 센터를 개조해 제품 유통의 흐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캐나다 원어민 영어회화 레슨

ENGLISH CLASS
원어민 영어

esl2019canada@gmail.com
Tel : 403-891-3162 / 403-264-4426

LYM VIOLIN LESSON

대입실기 지도/ 영재 스키 교육
West Kesington Tel : 403-689-6485

북/ 장구/ 아쟁/ 징
한국전통예술 레슨

Korean Art Club Tel: 403-510-8077

PIANO LESSON

어린이 조기 교육 전문
Calgary NE

일러스트레이트 / 인디디자인
개인 레슨

Ai Id

Tel : 587-664-1042

코딩 스쿨

CODING BUDDIES

Tel : 403-422-1622

골프 레슨
Beddington Golf
Tel : 403-686-2171

유튜브 제작 실기

셋업부터 올리기까지

You Tube

Tel:403-926-3890

현 화실

Tel (403) 861-9290